

## 홀심社, 상반기 실적 38% 증가

올 상반기에 홀심의 시멘트 판매량은 24.8% 증가한 6,550만톤을 기록하였는데 레미콘부문은 20.3% 증가한 2,070만<sup>m</sup>³, 골재부문 출하는 23.9% 늘어난 846만톤을 기록하였다고 발표하였다.

홀심의 매출액은 38.2% 증가한 69억 7,400만유로를 시현하였으며 EBITDA는 33.4% 증가한 17억 4,200만유로를 기록하였다. 6월말 기준 순부채는 전년동기대비 3.6% 감소한 77억 9,600만유로를 시현하였다.

유럽에서의 매출액은 29.8% 늘어난 25억 4,000만유로이며 EBITDA는 20.6% 증가하였다. 유럽지역 시멘트 총출하는 3.4% 증가한 1,540만톤이었으며 이는 24.4% 증가한 골재출하 증가와 18.5%나 증가한 레미콘 출하 호조와 연관이 있다. 프랑스, 스페인, 러시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지역에서 수익성이 큰 개선을 이루었지만 판매량 면에서는 전유럽 시장에서 개선을 나타내었다. 베네룩스 3국과 스위스에서 영업호황도 눈에 띄며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던 독일 자회사도 다소나마 판매 호조를 보였다.

북미지역의 가격상승으로 매출액은 39.8% 증가한 15억 2,300만유로를 기록하였으며 EBITDA는 22.9% 증가한 2억 4,100만유로를 나타냈다. 동지역에서의 시멘트 출하는 8.8% 증가한 870만톤이었으며 이는 국내생산과 수입증가에 기인하고 있다. 미국내의 건설관련 시멘트수요는 주택건설실적 저조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고 있다. 캐나다에서의 수요는 전면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7월에 있었던 두번째 가격인상은 톤당 5.5달러이며 내년 1월쯤에는 톤당 11~12달러로 추가 인상할 계획이다.

(International Cement Review 2006. 9월호)

## 라파즈社, 베트남에 시멘트 분쇄공장 신설

지난 2001년 호치민시에 처음으로 레미콘영업을

시작한 라파즈사가 호치민시에서 남동부로 25km 떨어진 동나이 지방 롱타우강 근처에 새로운 시멘트 분쇄공장을 개설하였다.

직영 항만을 갖춘 연산 50만톤 규모의 이 공장은 3,000만달러(미화기준)를 투자하여 1년반에 걸쳐 완공되었다. 이는 베트남 건설자재회사와 합작으로 70%의 지분을 소유한 라파즈사의 Xi Mang 프로젝트의 일환에 따른 첫 결과이다. 동계획은 베트남 건설시장, 특히 호치민시 지역에서 강력한 확장을 시도하고 있는 라파즈사의 빠른 성장에 청신호가 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15%에 달하는 올해 베트남의 시멘트 시장은 3,000만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베트남의 시멘트 수입은 크링카 기준 400만톤 정도이다. 급격한 경제성장과 도시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호치민시 지역의 이번 계획은 빠르게 성장하는 신흥시장에 대해 집중하고 있는 라파즈그룹의 전략과 맞닿아 있다. 라파즈사는 또한 최근 석고보드 공장 건설을 계기로 베트남에서의 건축자재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International Cement Review 2006년 9월호)

## 안후이 콩치社, 상반기 성장 질주

중국의 안후이 콩치사가 신규 인수한 회사의 매출 신장과 이익률 향상으로 상반기 순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457%나 급증하였다고 발표했다. 순이익은 지난해 9,140만위안이었으나 올해는 5억 900만위안으로 큰폭 상승하였으며 매출액은 48.5% 증가한 67억 위안이었다고 덧붙였다.

동사는 중국 남부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두개 회사를 인수하였다. 올초 지난 2년 동안에 비해 낮은 판매가격과 경쟁심화에도 불구하고 연간 시멘트 판매량을 23% 증가한 7,000만톤으로 예상하였다. 올 7월에 건자재회사와 포장회사 및 플라스틱 제조회사 등 여러 회사를 총 4,100만위안을 들여 인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 동사는 주당 13.30위안의 가격으로 총 227만 6,000주를 발행할 계획이다.

(International Cement Review 2006년 9월호)

## 하이델베르그社, 인도시장 진출 가속화

독일의 하이델베르그시멘트사는 인도 중남부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주요 시멘트업체인 Mysore社를 인수할 계획이다. 동사는 북중부의 Damoh공장과 남부의 Ammassandra 공장, 그리고 북부의 Jhansi 분쇄공장이 합병된 시멘트회사이다.

Damoh과 Jhansi 공장은 Bhopal, Lcuknow 지역의 시멘트를 공급하고 있고 Ammassandra 공장은 급성장하고 있는 Bangalore 지역과 편리한 접근성을 갖고 있다. 동지역에서의 지난해 시멘트와 크링카 판매는 220만톤에 달했다(총생산능력은 260만톤).

첫번째 단계로 하이델베르그사는 증자를 통해 41.7%의 지분을 인수할 계획이다. 증자완료 후 동사는 Mysore시멘트사의 지주회사인 Birla그룹으로부터 8.4%의 지분을 인수할 계획이며 이로 인해 Mysore시멘트사의 지분은 50% 이상이 될 것이다. 이번 지분 인수금액은 미화 1억달러이며 인도법에 따라 의무를 지게 될 것이다.

하이델베르그사의 회장인 Bernd Scheifele는 “Mysore시멘트사의 인수합병은 신흥시장에서의 단계별 확장을 위한 장기전략의 연장선상이다. 중·남부인도에서의 활동과 연계하여 이번 인수합병이 향후 급성장하고 있는 인도 서부의 시멘트 공급에 훌륭한 출발점이 될 것이며 몸바이와 함께 인도에서의 생산능력은 350만톤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International Cement Review 2006년 8월호)

## 대만 시멘트업계, 중국시장 실적 하락

대만 시멘트업체는 본토인 중국에서의 영업활동이 저조, 올초 계획대비 이익이 10%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전망의 근거는 본토에서 경기과열

을 악화시키기 위한 진정책의 실시로 시멘트 판매가격이 5% 내지 10% 정도 하락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충격의 영향으로 중국 남부의 시멘트가격은 올해 초 톤당 330RMB로 10% 하락하였다.

중국남부 시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대만의 TCC사는 올해 2분기에 광둥에 있는 Yingde공장의 대량생산으로 1억RMB의 매출을 올렸다고 평가하고 있다. Yingde공장은 연간 350만톤의 시멘트를 생산하고 있다. 중국 동부지역에 역점을 두고 있는 치아신사는 두번째 긴축경제정책이 실시되면 하반기에 시멘트가격이 5~10%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중국 동부지역의 시멘트가격은 톤당 250RMB~320RMB 사이에서 결정되고 있다.

중국에서 기상조건 악화에 따른 영업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동사는 지난해 1,000만RMB의 매출을 올린 수출부문에 주력, 올해 중국 본토에서 250만톤을 상회하는 시멘트 수출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지난해에 비해 200%가 증가한 실적이다.

중국 정부의 첫번째 긴축경제정책의 영향으로 지난해 7,000만NT\$(대만달러)를 매출을 올린 아시아시멘트사는 상반기에 중국 본토의 생산능력을 40% 정도 확충하였으며 올해 중국 본토에서의 영업에 따른 매출 증가는 2% 정도로 예상하였다.

(International Cement Review 2006. 8월호)

## 라파즈의 베일벗는 발전계획

라파즈사가 2008년까지 4억유로의 비용절감을 위한 새로운 전략과 향후 3년 동안 15억유로에 달하는 현금흐름 조절의 상세계획이 전모를 드러냈다. 프랑스지역그룹은 또한 국면전환을 위해 지붕 건축자재 부문의 매각에 나섰다.

라파즈는 또한 2008년까지 주당평균 연간 수익률을 지난 2월에 발표한 8%보다 상승한 10%로 목표를 삼았으며 투자자본이익율을 지난해말 8.5%에서 2008년까지 10%로 증가시키기로 목표를 정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더욱 유기적인 조직체

를 통해 큰 목표와 이익을 실현하는데 전념하기 위한 힘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맞춘, 각 부문별로 최고가 되기 위한 그룹차원의 결정입니다”라고 밝혔다. 「Excellence 2008」로 명명되어진 이번 계획은 15억유로에 달하는 향후 3년간의 추가적인 현금흐름 창출을 전망하고 있고 급성장중인 신흥시장에서의 시멘트 영업과 콘크리트 부문의 기술혁신에 초점을 맞춘 수익성 위주의 성장전략에 목표를 두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향후 수년동안 우리의 주요 성장동력은 시멘트부문, 특히 급성장중인 시장입니다. 우리는 신규공장 건설과 인수합병을 통한 균형적인 성장과 우리가 최근 수년동안 이룩한 위상 구축을 통해 이를 달성할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4억유로에 달하는 비용절감 프로그램은 라파즈 북미법인의 저수익부문 매각과 지붕 건축자재부문의 국면전환 계획에 따른 6,000만유로의 비용절감으로부터 시작된 시너지효과다.

(International Cement Review 2006. 7월호)

## 필리핀, 포춘시멘트사 올해 전망 저조

필리핀의 포춘(Fortune)시멘트사는 정부의 SOC 부문 추진저조와 높은 에너지 비용으로 올해 시멘트 판매 및 수요가 감소하거나 적어도 지난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멘트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는 저조한 수요와 불리한 경제상황으로 인해 공공부문 수요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건축기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에드가르도 R 소리아노 포춘시멘트사 대표이사는 “지난해 시멘트 수요는 4.5% 감소한 1,180만톤이었는데 올해는 지난해 수익인 5억 3,100만페소를 유지하는데 만족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세전수입은 2004년 5억 2,100만페소보다 다소 호전된 5억 3,100만페소였다. 또한 소리아노 회장은 “대호황은 기대하고 있지 않으며 올해 시멘트 수요는 정부의 승인지연으로 인한 SOC부문의 수요가 한계를 보임에 따라 민간부문의 소비주도로 감소내지 전년수준

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주총회에서 밝혔다.

필리핀 정부는 2005년 예산 규모에 맞춰 올해 지연된 예산에 대한 삭감을 진행중에 있으며 국회도 이미 동의했다. 시멘트업계 관계자 또한 전력요금과, 석탄가격 등의 인상으로 시멘트수요가 소폭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석탄 및 전력요금이 35% 상승하였고 기타 원자재 가격은 9%나 증가하였다”고 말했다.

소리아노 회장은 추경예산을 통해 정부가 SOC부문의 투자를 늘린다면 시멘트산업 업황이 호전될 수도 있다고 언급하며 정부가 포춘시멘트사의 매출신장에 영향을 미칠 남루존(South Luzon) 고속도로의 신속한 복구공사 추진을 촉구하였다. 이 공사는 마닐라와 케존간을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로서 올해 초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었었다.

(International Cement Review 7월호)

## 인도네시아, 시멘트 판매부진

인도네시아 시멘트업계 선도기업인 PT Semen Gresik TBK사는 지난 7월 시멘트 내수출하가 전년동기대비 부진한 279만톤에 그쳤다고 발표했다.

올해 인도네시아의 시멘트 내수출하는 지난해 10월 이후 급등하는 연료비 상승에 따른 정부 보조의 축소로 경제가 둔화되면서 감소해 왔다.

자바에서의 시멘트 내수출하는 3.5% 감소한 174만톤이었으며 PT Gresik사의 내수판매는 4%가 감소한 122만톤에 그쳤다. 7월까지 누계기준 시멘트 내수 출하는 전년동기대비 3% 감소한 1,734만톤에 그쳤다. PT Gresik사의 내수판매는 2.2% 증가한 813만톤이었다. 일부 시멘트산업 전문가들은 올해 시멘트 내수가 지난해 3,151만톤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시멘트 소비는 정부의 SOC 부문 투자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전문가 전망치인 7~8%보다 낮은 4.9% 증가에 그쳤었다.

(International Cement Review 9월호)